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그릇

-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후서 -

수14:10-14, 딤후2:20-22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복음의 유산을 받을 받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다. 기록연대는 AD66년경으로 보고 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의 감옥이다. 이 때 사도바울은 로마의 황제 네로시대에 두 번째로 잡혀서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8장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28장 이후에 사도바울의 중요한 전도여정이 있다. AD61년 경 1차 투옥이 되고, 에베소와 마게도냐에 들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 들러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사도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 전서는 AD63-65년 경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다시 드로아 라는 곳에 갔다고 본다. 이 드로아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손짓해서 마게도냐(지금의 유렵)로 오라고 한 곳이다. 트로이의 목마 할 때 나오는 트로이(드로아)이다. 로마에 가서 목회 서신을 쓰는데 AD66년경에 디도서, AD67년경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디모데 후서를 쓴다. 2차 투옥이다. 그 후 AD68년경에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서바나(지금의 스페인)까지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바울의 사역 중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다. 사도바울은 축복된 사람이다. 죽음을 앞두고 나의 모든 사역을 부탁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다. 믿을만한 사람이 있었다. 디모데가 전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너무 착하다보니 속 병이 많아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했다. 워낙 보수적이어서 위장병 아픈데도 술이기 때문에 전혀 먹지 않아서 사도바울이 권했다. 그만큼 디모데는 조심성이 있고 착하고 순종적인 그런 제자였다. 그리고 복음적이었다.

에베소와 같은 어려운 현장에 왜 디모데를 놔두었는가? 디모데가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우상 가득하고 영적 문체가 많았던 현장에서 오직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지킬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도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바란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제자가 일어나시길 축원드린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디모데가 끝까지 복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제자요 하나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여호수아와 디모데처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갈렙이 이런 역할을 했다. 친구인 여호수아는 민족의 대통령인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동장도 못했다. 근데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헤브론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아낙에 강한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고백한다. "오늘 내가 팔십 오세로되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곳에는 아낙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위기때에 나를 보내라는 것이다. 이 고백하는 그릇이 되시길 바란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은 1-2년 보지 않는다.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다.

일본이 대단한 나라이다. 우상숭배 엄청나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사나 의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말고는 볼게 별로 없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GDP가 3만불도 안되는데 선진국 소리 듣는다. 지금 한국의 진단 키트를 요청하는 곳이 120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실 것이다. 다른 것 할 필요 없다. 이는 영적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인데, 성경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다. 역사학자가 말했다. "성경이 사실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란다.(요삼1:2) 잘 될 때 놀고 마시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에 끊어버린다. 예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시길 바란다. 그래야 지켜지는 것이다. 영육 간에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소중한 깨달음과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린다. 우리에게 주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줄 믿는다. 이 어려운 시대에 중요한 복음의 천명 사명을 위탁할 자가 디모데 밖에 없었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위탁하다보니, 알려줄게 너무 많다.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를 기록하게 됐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교회와 성도를 지킬 수 있는 사실적인 기준, 수준, 표준을 주고 있다. 디모데를 보면 성경에 무슨 이런 내용을 썼지? 하지만, 먼저는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릇을 갖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1. 먼저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릇(옛 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한다. 류목사님도 말할 때 진짜 제자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진짜 제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과장법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도바울도 그랬다. 더 잘 갖추라고 하는 말이다.

1)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바울을 버렸다고 했다. 디모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질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1장 15절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바울을 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들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이다. 성경에 악역으로 남아있다. 우리도 교회 역사에 남는다. 이름이 다 남는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아야하는가? 제 아이가 3명인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평가하는 2-3줄이 있다. 보고나면, 진짜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은혜롭게 쓴다. 여러분에게 쓰여진 2-3줄이 어떤 글이 되었으면 하는가? 디모데와 같이 쓰임 받는 제자 되시길 바란다.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할 수 있지만 가짜만 하지 마라. 오직복음 때문이 아니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2) 2장 17절에 보면 후메내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들도 끝까지 쓰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1) 이들은 명령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교회 일에 대해 불만하지 말고, 본인이 하면 된다.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할 말이 없다. 주장할 것도, 질문할 것도 없다. 안 되면 불평하는 사람은 전도가 안 된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한번도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한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2)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그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없었다. 우리가 명칭하고 몰라서 그런가? 착한 사람이 더 잘 안다. 말하고 싶은 것 하지 마라. 참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명령의 뜻은 '세속적인, 모독적인, 불경스러운, 욕' 등이다. 이렇게 하면 더 수준 낮아진다. 참아줘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게 영적인 문체고 사단의 통로이다. 디모데후서 2장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종양 같이 퍼뜨리고 다니니, 그래서 중간사역자가 중요하다. 문제를 가져오면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기도해야지."라고 해주면 된다. 증식자들이 이런 소중한 역할 하시길 바란다.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다보니 나중엔 부활까지 부인하게 된다. 어떤 부분도 진리를 찾아가면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다.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도 그리스도로 결론난다. 생명 살리는 진리를 쫓아가시길 바란다. 그런 겸손한 중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교만한 자는 틀리게 본다. 내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남의 죄를 지적하느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길 바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 밖에 없다. 어떻게 남의 약점, 잘못이 보이는가? 은혜 받은 것, 용서 받은 것을 보지 못한다. 감사가 안 나오고 없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 하나님도 줄 수가 없다. 복음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란다.

3)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없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죽을 때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다. 사도바울이 뒤끝이 있다. 그 현장을 정확히 보고 말했었다. 알고 참아야지 모르고 참는 건 틀린 것이다. 얼마나 창피한 평가인가?

4) 이 정도가 아니었다. 디모데후서 4장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기록되어있다. 디모데후서 4장14절 “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내용까지 적었을까?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목회의 현장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즉 목회에 대한 예방수사, 백신 복음으로 여러분이 치유되고 준비되시길 바란다. 우리가 복음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성도들이 완전복음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2. 다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복음적인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디모데후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조부모와 부모님의 믿음의 배경과 기도의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1) 디모데는 사도바울을 만나기 전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배운 렘넌트 후대였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2)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하였다. 디모데후서 3장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사도바울을 만나 참 복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후대들이 대표적인 응답과 만남의 축복, 복의 근원 될 줄 믿는다.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주셨기에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원조, 시조가 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란다.

2)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말을 본받아 잘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13절-14절 말씀을 보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은 강단메세지의 제자 되시길 축원드린다. 말씀을 붙잡아야한다. 1장 14절에 “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복음)을 지키라” 이 사람이 제자이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지켜야한다. 가정도 그렇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3)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외유내강(外柔內剛). 속은 강하고, 밖은 부드러운 것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순교하는 것이다.

4) 충성된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했을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가 예비 되어있다. 사역할 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만 계속 만나면 힘 빠진다. 나보다 더 잘 예비된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전도가 재미있다. 성도님들이 지금 복음소식을 영어로 외우고 있다. 이제 복음소식 암송대회를 할 것이다. 장로님 한 분이 바로 상금을 헌신하셨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란다.

5) 군사처럼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처럼 또한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소중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안에 많은 소중한 것들이 담겨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란다.

6) 디모데후서 2장22절로 25절에서는 주님께 쓰임 받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툼이 나기 때문이다. 복음 전할 시간도 부족하다. 24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라” 24절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라”, “참으라”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위 내용은 어린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체질화 시켜야 할 말씀인 것이다.

7)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 받을 사람은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결단한 사람이다. 사도바울은 말세의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먼저 내가 돌아서야겠다. 우리는 창3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한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한다. 복음으로 나오는 길도 모르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릇이 되시길 바란다.

8)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그릇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24시간 올인 하는 사람이다. 모두 다 이런 사명자 되시길 축원드린다. 디모데후서4장2절 말씀을 보겠다. “너는(디모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자 디모데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야할 언약인 것이다. 말씀 전하다보면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하는 자가 권사이지 않는가.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한명만 나와도 우리교회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한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Covenant 언약이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최고의 언약은 끝까지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그릇이 되라는 것이다.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전 세계 237나라에서 여호수아와 디모데 같은 충성된 후대를 찾아 그들을 영적리더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Dream 꿈이다. 만약에 성도들 중에 소수라도 24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 하는 제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Image 이미지이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여 기도하는 ‘서밋타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생생하게 성취되는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에 따라서 미션을 적용해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증인이 되시라. 계속 시간표에 따라 도전하시길 바란다. 나의 ‘서밋타임’이 있어야한다. 저는 매일 성경 집중으로 가장 은혜가 넘쳤을 때 성경 10장을 매일 읽었다. 1시간~1시간 30분 정도 된다.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이다. 집중해서 성경 10장을 읽어보라. 성경 전체가 열린다. 그래야 지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할 수 있다.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다. 24시 금식기도와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특별새벽기도 메시지에서 증거 되는 복음성구 100구절 암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호수아와 디모데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큰 그릇, 편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